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니...누진제 폭탄 현실로

4만원→15만원...서민들 심장이 ‘쿵’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여·35)씨는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기가 찼다. 6월까지 4만원선이던 전기요금이 7월분 고지서엔 3배가 더 많은 15만5460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16개월 된 갓난아이가 있지만 웬만하면 선풍기로 버티다가 7월 하순들어 무더위 탓에 에어컨을 켰다갔다 하며 나름 절약했는데 요금은 3배가 넘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6월 전력사용량은 299kW, 7월에는 521kW로 2배에 못미쳤는데 요금은 3배가 넘게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정마다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난리다.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3배가량 오른 전기요금에 분통이 터지고, 아직 고지서를

폭염에 에어컨 가동 크게 늘어
곳곳 아우성...항의전화 빗발
광주·전남 학교도 걱정 태산

받지 않은 가정은 요금이 얼마나 쏟아질지 가슴이 답답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경우는 요금 폭탄이 뻔해 한숨만 저절로 나온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월 전력사용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온 데 비해 요금은 평소보다 4~5배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박모(여·30·광

주시 북구)씨는 평소 4만~5만원선을 유지하던 전기요금이 이번 달에는 21만1040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고 한숨 지었다.

인터넷커뮤니티 곳곳에서도 요금 폭탄에 대한 불만과 격정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nu * *”가 올린 22만1460원의 전기요금 청구내역 사진에는 ‘우리도 이제 곧 나오겠지. 관리비 나올 때 됐으니까, 떨린다’, ‘퇴근할 때마다 성적표 오는 날 기분처럼 우체통 본다. 아 스트레스’ 등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관련 댓글들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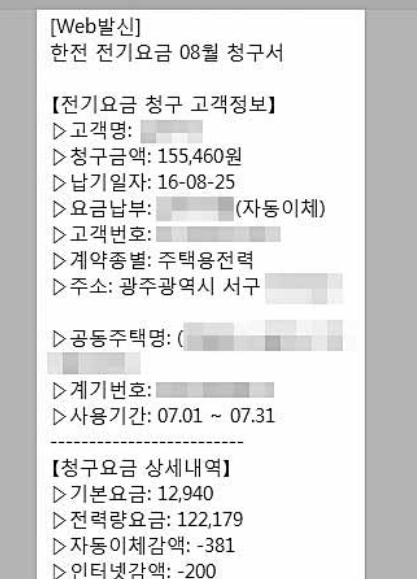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이 요금에 대한 항의다.

각 가정에서는 다음 달이 더 걱정이다. 8

월초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종일 집안에 있었던데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져 집안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8월에만 폭염과 열대야가 15일간 발생했다.

광주·전남지역 학교들도 전기료 폭탄에 걱정이 태산이다. 펄펄끓는 날씨에 냉방기를 거의 풀가동하고 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고교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교실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니 에어컨 가동을 안할 수 없다. 만약 가동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폭발할 것이다”며 “9월에 더위가 주춤하지만 조금 덥더라도 에어컨 가



김모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은 8월 전기요금 청구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으로 15만 5460원이 고지됐다. 전달(4만5840원)에 비해 3배이상 요금이 쏟아졌다.

등을 최대한 자제해 전기요금을 벌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암동 폭우·광주과기원 썰렁...지역별 강수량 차이 왜?

대기 불안정 적란운 발달 ‘국지성 호우’로

지난 17일 오후 6시44분께 광주시 서구 포암동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의 소나기가 기습적으로 내렸다. 1시간 동안 포암동에 내린 비의 양은 60.5mm. 기습 폭우로 일부 도로에서는 승용차 바퀴가 빗물에 잠기기도 했다. 반면 광산구 일대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무더위가 계속됐다.

여름철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큰 기습 소나기의 원인은 뭘까.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의 지역별 강수량은 포암동 67.5mm, 조선평(동구 서석동) 23mm, 무등산(동구 용연동) 6mm, 광

주기상청(북구 운암동) 5.4mm 등이다. 광산구 용곡동과 과기원(광산구 오룡동)에서는 강수가 기록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 3일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다. 광산구 용곡동과 과기원에 각각 24.5mm와 15mm의 비가 내렸지만 포암동의 강수량은 2.5mm에 그쳤다. 당시 광산구 분량동, 하남동, 산월동 등 10여곳의 도로에서는 물이 역류하면서 차량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 때문이다. 여름철 태양열로 지표가 가열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해

차가운 상층부 공기와 만나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진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마철 비구름과 달리 규모가 작고,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17일 포암동에 내린 국지성 호우는 광양에서 만들어진 뒤 순천(17일 0.6mm)과 화순(5.5mm)을 지나면서 발달한 적란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기를 뿌리는 이 적란운이 조선평을 지나 포암동에서 가장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기는 진로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느 한 지점에서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머무는 경우도 많아 지역별 강수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DJ 서저 7주기에...생가 방화 일부 소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저 7주기인 18일 신안군 하의도에 위치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일부 소실됐다.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지난 2002년 12월에 이어 또다시 방화범의 소행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경찰청은 김 전 대통령 생가 초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마을 주민 A(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와 초가집 형태로 지어진 사랑채 처마에 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불길이가 초기에 잡힌 덕분에 피해 규모는 1㎡에 그쳤다.

A씨는 “신안군청이 김 전 대통령 생가 부지를 넓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바로 옆집인 우리집을 수용하려고 수년째 접촉해왔다”면서 “내 집을 산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또 추모식을 한다고 군에서 계속 귀찮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통령 생가는 지난 2002년 12월 13일에도 방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새벽 1시30분께 시작된 불은 생가 내 창고 13평과 본채 초가지붕 등 생가 전체의 절반을 태워버렸다. 불잡힌 방화범 서모(당시 38세·대전)씨는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관여 비서실장 징역형 선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며 “최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강동 대비 노후간판 철거

광주 북구청과 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 관계자들이 18일 두암동 주공2차 아파트 상가에서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노후 간판은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광주 북구청과 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 관계자들이 18일 두암동 주공2차 아파트 상가에서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노후 간판은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사가 너무해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

약자를 보호해야 할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적장애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광주 모교회 목사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여고생 B(17·지적장애 1급)양과 C(16·지적장애 3급)양 등 2명을 각각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전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을 자신의 차량과 노래방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해외여행 미끼 돈 쟁취

여행사대표가 해외 도피

광주의 한 여행사 대표가 해외여행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기고 국외 도피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광주관선경찰과 광주시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날 29일 피해자 A(50)씨 등 18명이 광산구 S여행사 대표 김모(59)씨가 1800만원의 해외 여행비용만 챙긴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서 7월 10일께 캄보디아 4박5일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소식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시관광협회 측은 여행사 대표 김씨에게 여행사기를 당했다는 단체인광팀은 10개 팀이며 피해금액은 지난 4월 기준 1억5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

허적! 1타당 1억원 ‘상남 골프’

“...‘땅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중소 기업 대표에게 1타당 최대 1억원짜리 ‘상남 골프’를 치게 해 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들미.

○...18일 부산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3)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09년 건설자재 사업을 하는 A(65)씨에게 접근해 “28억원짜리 공장부지를 대기업에 140억원에 팔아주겠다. 임원들 로비는 내기 골프로 하면 된다”고 꼬여 유인.

○...1타에 5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1억원까지 커졌고 A씨는 내기 골프 20차례 만에 40억원을 잃어줬는데, 검찰 조사에서 그는 “김씨 소개로 28억원 주고 구입한 공장부지가 2년여 만에 70억원으로 치솟은 것을 경험한 터라 김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후회.

/연합뉴스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전원주택지

◆ 경기도 평택시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 토지 1,611평 (총 7 필지 분할가능)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 최고의 입지 조건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 수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평택 소액 투자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과 LG전자 정문 앞 위치
▶ 매가 5억 2천

②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 613평 (평당 95만) / 고덕신도시
▶ 매가 5억 8천 235만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 775평 (평당 120만)
고덕신도시 5분, 도로접합
▶ 매가 8억 5천만

010 - 6670 - 9800

010 - 7384 - 7800